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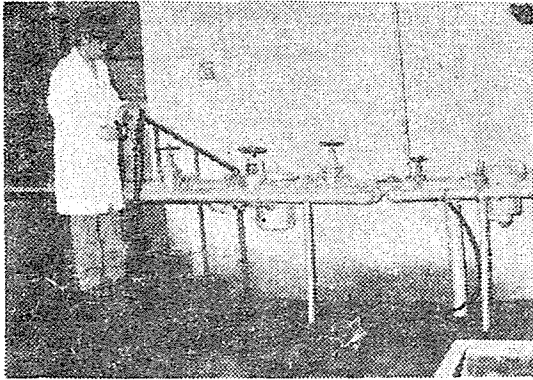
휴대용 방사선원 카메라장치 새로 개발

安全度 높고 · 性能面 完전 · 휴대에 간편

非破壞性 사용용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尹容九)의 放射性同位元素 실험장 金永國 박사팀과 공작실 黃昌圭 실장팀은 최근 非破壞性 檢査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휴대용 放射線源 카메라 장치를 새로 개발하여 국내 비파괴 검사업체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산 휴대용 방사선원 카메라 장치는 대부분 ① 중량이 너무 무거워 휴대에 불편하며 ② 차폐가 불완전하여 표면 방사선량이



규정치를 초과하고 있고 ③ 성능면에서는 완전치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수입해 오는 휴대용 방사선원 카메라 장치는 성능면에서 우수하다고 하겠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하여 시제품으로 내놓은 휴대용 방사선원 카메라는 ① 표면방사선량을 규정치 이하로 하여 안전도가 높고 ② 무게가 가벼운 반면 의형이 휴대하기에 알맞으며 ③ 성능면에서 완전하고 ④ 가격도 의제에 비하여 대폭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국산 방사선원 카메라의 중량은 대체로 30 kg 인 데 비하여 이번 새로 개발한 것은 중량이 17 kg 으로서 휴대하기에 가볍고 가격면의 있어서도 수입품은 1백20만 원 ~ 2백50만 원인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한 것은 원적조정장치를 포함하여 보급 예정가격을 약 70만 원으로 잡고 있다.

이번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하여 제작한 장치

치가 활용될 경우 막대한의 화유를 방지하게 됨은 물론, 실제 비파괴 검사업무에 있어서도 고도로 안전하고 중량이 가벼워 매우 편리한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국내 비파괴 검사업체의 좋은 이다.

生命科學 세미나 江原大서 實施

생명과학 Seminar 20회 기념 招請講演이 지난 7월 7일 강원대학교 교수회의실에서 있었다.

강원대학 생명과학 Seminar Group(과장: 김우훈)이主催, 「유전학적으로 본 인류의 미래」(鄭路載博士: 유전학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장 한국생물교육학회회장), 「인삼배양체의 제반기능」(韓德龍博士: 생약 중앙대학한대학장 · 대학생약학회장), 「오염 미생물학의 근황」(洪淳佑: 미생물학, 서울대학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등 3개의 論文이 發表되었다.

철강공업의

철강공업의 중요성 세미나 실시 한국 철강협회(회장: 김봉

훈)는 7월 13일 무역회관 7층회의실에서 創設 2주년記念事業의 일환으로 철강공업育成綜合對策에 관한 세미나를 商工部(重工業局)後援으로 開催했다.

發表演 主題 및 講師는 다음과 같다. 전기도 조영의 생산성 향상: 김진형(인천 제철(주) 기술상무이사) 우리 나라 특수강 수요와 육성 방안: 박현준(KIIST 철강재료 연구실장) 철강공업의 당면과제: 다바다 신타로(일본철강협회전무이사) 철강공업 육성 전략: 최정열(한국철강협회상무이사)

科學技術會館

데니스코트開場

지난 16일 하오 1시 科學技術會館의 세위진 데니스코트가 開場, 金允基 科總會長, 姜信澤 事務總長 등 職員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開場예프를 풍고 아울러 金允基 會長의 始球式이 있었다.

지난 5월 15일 施工을 한 이래 하달만인 6월 16일 약 1,680평의 코트 7면, 연승용 back board, 그리고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휴게실이 마련되어 데니스코트의 面貌를 갖추게 되었다.